

공직동기와 이타주의 관계에 대한 집합 개념적 고찰

이 태 우

국문요약

공직동기는 이타적인 동기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공직동기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타인지향적인 이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공직동기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이타주의 유형들을 구성원소로 하는 집합 개념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타주의 집합의 구성원소들은 시혜적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협력적 이타주의, 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이다. 공직동기 집합의 구성원소들은 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이다.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임이 밝혀졌다. 공직동기 집합에 포함된 이타주의 유형들은 행위자가 동기에서 자기의 이익에 관한 이해타산적인 셈법이 없고 오로지 타인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상의 순수한 이타주의이다. 공직동기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이타주의 유형들은 이기적인 동기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불순한 이타주의이다.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를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순한 이타주의자가 아니라 순수한 이타주의자로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당위적인 책무를 진다.

주제어: 공직동기, 이타주의, 부분집합, 구성원소, 이타주의 유형

I. 서론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공직동기(PSM)는 민간부문의 합리적 선택 동기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공직동기에 관하여 측정척도를 이용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직동기는 공공조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개인의 사익을 초월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타적인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동기는 이타적 동기이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이타적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공직동기를 보유한 공직자들이 공공봉사자로서 추구하는 타인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일반국민들로 구성되어지는 공증을 위한 공익의 형태로 실현된다(Staats, 1988; Perry & Wise, 1990; Perry, 1996; Perry, 1997; Rainey & Steinbauer, 1999; Perry, 2014).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와 관련된 합리적 선택동기와는 달리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는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타인지향적인 이타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이러한 관련성은 공직동기 연구에 관한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와 인정을 받으며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Perry & Wise, 1990; Rainey & Steinbauer, 1999; Wise, 2004; Houston & Cartwright, 2007; Perry & Hondeghem, 2008; Perry et al., 2010).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가 개인 개개인을 위한 사리사욕의 이기주의보다는 타인의 복리(welfare)를 위한 이타주의와 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직동기의 이타주의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타주의 유형들이 구성요소가 되는 집합 개념의 차원에서 동일집합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분집합으로 보느냐를 놓고 공직동기의 연구자들 간에 관점이 서로 대립되어 갈린다. Rainey & Steinbauer(1999)는 동일집합의 관점을 취하지만 Perry et al.(2010)은 부분집합의 관점을 견지한다. 동일집합 관점은 공직동기 집합과 이타주의 집합은 동일한 집합이어서 공직동기와 이타주의는 완전 같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부분집합 관점은 공직동기 집합이 이타주의 집합의 부분집합이어서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와 일부분만 같고 일정부분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동기 등장의 초기에는 공직동기의 이타주의가 합리적 선택 동기의 이기주의와는 차별화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와 똑같다는 동일집합 관점이 학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공직동기에 대한 실증적 경험적 연구들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자 학자들의 관심이 부분집합 관점으로 옮겨갔다.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의 보유자인 공직자가 공공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신분으로서 갖는 이타주의는 일반인들이 일반적 신분으로서 갖는 이타주의보다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관심을 바꾸었다. 변화된 관심의 전개과정에서 동일집합 관점은 열세로 밀려나고 부분집합 관점이 대세를 이루어 오고 있다(Perry, 2014; Bozeman & Su, 2015).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의 일부분인 부분집합이라고 보는 부분집합 관점은 주류를 이루는 대세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와 부분집합의 관계라면 공직동기의 뿌리는 이타주의이라는 것이므로 이타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것을 도와주는 이론적인 설명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공직동기보다 이타주의의 범위가 더 커서 공직동기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 공직동기와는 실제로 관련이 없는 이타주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타주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유형들이 실제로는 공직동기와는 관련이 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셋째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이라면 이타주의의 일부 범위와 겹치는 한정된 부분에 공직동기와 관련된 특수한 형태의 이타주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와 관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타주의 유형들이다. 이 유형들은 공직동기의 이타주의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내용이 되는데도 그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특수한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Bozeman & Su(2015)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공직동기의 이타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에 장애요소(stumbling block)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장애요소를 제거

하기 위해서 공직동기 연구자들이 집합 개념의 차원에서 구성요소인 이타주의 유형들을 중심으로 공직동기의 이타주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진전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동기에 관한 연구문헌에서 집합 개념을 논거로 하는 필요한 연구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문제점과 필요성 등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첫째 이타주의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타주의가 무엇인가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둘째 이타주의에 관한 사회생물학자들의 결과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부분집합의 범위 밖에 존재하여 공직동기와 관련이 되지 않는 이타주의 유형들과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사유들을 고찰하고 셋째 이타주의에 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동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부분집합의 범위에 속하여 공직동기와는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이타주의 유형들과 왜 특수한 형태인가의 사유를 규명한다.

II. 이타주의에 관한 이론적 검토

옛날부터 동서양의 철학을 비롯한 문화와 종교에서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타인을 위해 돕거나 나누거나 헌신하는 삶들을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미덕이자 덕목으로 여겨져 왔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인 Comte(1852)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키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이기주의(egoism)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다양한 삶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타주의(altruism)라고 명명하였다. 학계에서 학문적인 용어로 최초로 명명된 이타주의는 이탈리아어의 타인이란 의미의 altrui(other)를 원용하여 만든 프랑스어인 altruisme에서 유래한다. Comte(1852)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utopia)가 되려면 이기주의를 대신하여 이타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타주의는 최고의 사회적 지도 원리라고 믿었다.

이타주의에 대한 상식적인 개념정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나타낸다. 이타주의는 타인(other)을 중심으로 볼 때 타인의 이익이 핵심이라는 것은 학자들 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행위자인 자기(self)의 관점에서 사회생물학자와 사회심리학자의 개념정의는 극명하게 대립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개념정의들은 이타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생물학자인 Fehr & Fischbacher(2003)는 행위자가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동을 이타주의로 정의한다. 행위자가 자기에게는 손해이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이타주의는 자기와 타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이해타산적인 성격을 가진다(Wilson, 1975; Phelps, 1975; Margolis, 1982).

한편 사회심리학자인 Batson & Shaw(1991)는 이타주의를 행위자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는 이타적인 욕구(impulse)에 의해서 촉발된 행동으로 정의한다. 행위자는 타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이타적인 욕구만 있을 뿐 자기 손해라는 관념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타주의는 자기의 이해

타산을 전혀 계산하거나 상정하지 않는 특성을 띤다(Bar-Tai, 1985).

이타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단초로 접근법이 있다. 이타주의를 어떤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가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상충되어 나타난다. 하나는 이타주의의 결과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결과적 접근법이다. 또 하나는 이타주의의 동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동기적 접근법이다(Sober, 1988).

결과적 접근법에서는 어떤 행위라도 결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면 이타주의로 본다. 행위가 타인에게 나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만 초래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타주의에서 행위의 결과만을 가장 중시하고 행위의 동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비록 동기가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과만 이타적이면 이타주의가 된다(Wilson, 1975; Margolis, 1982). 이타주의는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한 형태이다. 이타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공리주의와도 유사하다. 본질적 차이점은 이타주의는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위하는 것이고 공리주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동기적 접근법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타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 이익을 사심이 없이(unselfishly) 주려는 이타적 동기도 있어야 한다. 행위의 결과는 물론 행위의 동기도 이타적이어야 이타주의이다. 이타주의에서 동기를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한다(Bar-Tai, 1985). 동기가 이기적이면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하더라도 이타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 이타주의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선의지(good will)를 포함하는 순수한 동기를 중시하는 칸트주의(Kantianism)와 맥을 같이 한다(Hoffman, 1981).

이타주의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접근방식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타주의가 이기주의와는 별도로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타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가? 이타주의의 존재 유무를 둘러싸고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이타주의는 타고난 천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인간은 이타주의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Durkheim, 1933).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이타주의를 천성 속에 가지고 있다(Smith, 1969). 이타주의는 어떤 외재적 보상은 물론 내재적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타인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만을 갖는다.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실체로서 친사회적 행동 등의 다양한 형태와 연결되어서 현실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존재긍정론은 타인을 위한 선행을 통한 사회복지리를 실현하려는 사회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관점이다(Buchanan, 1954; Arrow, 1963; Hoffman, 1981).

외견상으로 이타주의라고 생각되는 것도 엄밀하게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기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인간은 만족감 같은 내재적인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한 이기심의 발로에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 인간의 어떤 이타적 행위도 이기적인 동기를 내포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타주의가 이기주의와는 완전 분리되어 전혀 이기적이지 않은 형태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존재 부정론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합리적 이기주의 학자들이 옹호하는 관점이다(Scheler, 1955; Rand, 1964; Kelly, 1998).

공직동기의 보유자인 공직자는 개인 소유인 사적 자원을 가지고 자기와 타인의 손익을 따지는

계산적 관계에서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공직자는 공적 소유인 공적 자원을 가지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지고 공적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직자에게는 행위자인 자기와 타인인 국민과는 계산적 관계가 아니다.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가 없는데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손해의 관념을 가질 수가 없다. 공직동기는 합리적 선택 동기의 이기주의와는 완전 다른 이타적인 동기로 개념이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공직동기는 이기적 사심이 없는 이타주의의 실체적 존재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기저에 가지고 있다. 공직동기는 동기적 측면에서 공직자의 동기유발 기제를 이용하여 공직자의 조직 행동을 유도하고 지도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이론이다. 공직동기와 관련된 이타주의는 동기가 이타적이어야 이타적 행위도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동기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Ⅲ.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이타주의 유형

이타주의에 대한 접근법 중 사회생물학자들의 결과적 접근법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이타주의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행위자인 자기가 이타적 행위의 결과를 받는 수혜자인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다.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행위자 자신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없는 이타주의이다.

일반적으로 이타주의 유형들은 분류가 될 때에 이타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수많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 이타주의 접근법에서는 모두가 타인의 이익은 공통이고 자기의 이익이나 손해냐의 유형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해 보면 이타주의 유형들은 시혜적 이타주의(almsgiving altruism)를 비롯하여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와 협력적 이타주의(cooperative altruism)로 나누어진다(Hamilton, 1964).

행위자가 손해(-)이고 수혜자는 이익(+)이면 일방만 이익인 시혜적 이타주의(-, +)이다. 행위자도 이익(+)이고 수혜자도 이익(+)이면 쌍방이 이익인 호혜적 이타주의(+, +)이다. 행위자가 손해(-)일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는데 수혜자가 이익(+)이면 협력적 이타주의(+, -, +)이다. 이러한 이타주의 유형들을 구성요소로 갖는 이타주의는 행위자가 이익(+)이고 수혜자는 손해(-)인 이기주의(egoism)와는 다르다. 이타주의는 자신은 이익(+)을 보면서 타인에게에는 손해(-)를 끼치는 이기주의(+, -)와는 대비를 이루는 반대 개념이다.

1. 시혜적 이타주의

시혜적 이타주의는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도우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은혜를 베풀거나 선심을 쓴다는 시혜적 사고에서 나오는 이타주의이다. 시혜적 이타주의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자기의 이익이 더 커졌을 것이라 여긴다(Wilson, 1975; Margolis, 1982). 시혜적 이타주의의 기저에는 자기는 일방적으로 은전을 주는 강자이고 타인은 은

전을 받아 살아가는 수동적 약자라는 과시적 우월감이 깔려 있다. 이러한 과시적 우월감은 잃어버린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기 이익이 된다. 시혜적 이타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타인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면 자기는 이익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2. 호혜적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는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면 자기에게도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이타주의 유형(+, +)이다. 자기의 이익이 확보된다는 전제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며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어야 하는 상부상조가 세상사의 이치라는 관점이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타인과 자기 사이에 서로가 이익을 주고받는(give and take) 쌍방향 방식의 상호 교환적 관계로 이루어진다(Trivers, 1971). 행위자는 자기도 이익을 보아야지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수혜자가 될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건적이다.

3. 협력적 이타주의

협력적 이타주의는 타인과 협력하거나 협동하는 행위에서 나타난다. 행위자가 자기에게는 손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협력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시혜적 이타주의와 비슷하게 된다. 행위자가 자기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며 타인에게도 이익을 주려고 협력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은 호혜적 이타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협력적 이타주의는 시혜적 이타주의와 호혜적 이타주의를 혼합한 양면성을 가진다.

시혜적 이타주의는 넉넉하여 여유가 있는 강자인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약자인 타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생색내기식의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타주의가 순수하지 못하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타인을 돕는다는 구실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이익을 나누어먹는 이기적 상호주의에 불과하다(Sober, 1988). 그러므로 이타주의가 순수하다고 볼 수가 없다.

협력적 이타주의는 타인과 공동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팀을 이루어 협력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적 명분 속에서도 속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아도 양보를 했다는 우월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이타주의가 순수하지 못하다. 또한 대의명분 속에 자기의 이익도 숨겨서 확보한다는 은닉성이 있어 이타주의가 순수하지 않다.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이익을 주려는 동기가 자기의 이익이나 손해와 연결시켜서 이해타산적인 손익 계산이 되면 동기의 순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세 가지 유형들은 이타주의가 순수하지 않고 불순하다.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멸사봉공의 자세로 사익을 초월하여(transcending)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적 동기이므로 사익과는 완전하게 단절되어 연결되지 않는 동기의 순수성이 강조되고 있는 동기

이다(Vandenabeele, 2007; Perry & Hondeghem, 2008). 공직동기의 동기적 순수성은 자기 자신의 손해나 이익이라는 이해타산적인 셈법이 배제되고 오로지 일반국민들로 구성되는 공중(the public)의 이익인 공익이란 관념에 몰입하는 것이다. 공직동기의 동기적 순수성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순수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불순한 이타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 순수한 이타주의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이기적인 요소가 완전 배제된 것이고 불순한 이타주의는 이기적인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든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이타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기적 이타주의이므로 공직동기와 관련이 없게 되어 부분집합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IV. 부분집합에 속하는 특수한 이타주의 유형

이타주의에 대한 접근법 중 사회심리학자들의 동기적 접근법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이타주의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행위자인 자기가 이타적 행위의 결과를 받는 수혜자인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는 결과적 접근법과 같다. 하지만 동기적 접근법에서의 이타주의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행위자 자신은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이익(+)-을 생각하는 이해타산적인 셈법이 없는 동기적 순수성을 가진 이타주의인 점에서 결과적 접근법과 차이가 있다.

동기적 접근법에서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 더하여 동기적 순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되는 특수한 이타주의 유형들은 윤리적 이타주의(ethical altruism)를 비롯하여 공감적 이타주의(empathetic altruism)와 희생적 이타주의(self-sacrificial altruism)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될 수가 있다(Batson, 1987; Fieser, 2010; Bar-Tai, 1985).

1. 윤리적 이타주의

윤리적 이타주의는 인간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도록 윤리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다는 관점이다. 인간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윤리적 의무감으로 타인을 이롭게 할 때에만 정당하다. 윤리적 의무감은 인간의 내면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자아관념(self-concept)과 연관되어 있다. 자아관념은 인간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의 윤리적 정체성과 바람직한 가치가 무엇인가의 윤리적 가치로 구성된다. 윤리적 정체성과 가치는 인간을 규율하는 내적 규범으로 작용한다(Perry, 2000). 윤리적 의무감은 내적 규범에서 나오며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윤리적 명령이 된다. 인간은 윤리적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된다. 윤리적 의무감은 인간의 이타적 행동을 이끄는 내재적 동인이며 원천이다(Schwartz, 1970; Zuckerman et al., 1977; Schwartz & Howard, 1982; Briggs et al., 1986; Piliavin & Libby, 1986; Fieser, 2010).

2. 공감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는 곤경에 처한 타인과의 정서적 공감에서 비롯되는 이타주의이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과 처지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함께 나누는 감성이다. 타인과 공감을 하게 되면 인간은 타인의 안녕과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Batson, 1997; Batson, 2009). 공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어려운 처지의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타적인 성향으로 작용한다. 공감적 관심이 아주 높은 사람은 연민(sympathy)이나 동정(compassion)처럼 관망하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르지 않으며 불행에 처한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공감적 관심은 이타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원천적인 동력이다(이승조·백혜림, 2011; Oliner & Oliner, 1988; Davis, 2005; Bekkers, 2006).

3. 희생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희생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극한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기 파괴적인(self-destructive) 행동이다(Wilson, 1976). 희생적 이타주의는 일반인에게도 나타나지만 특히 소방 재난 치안 국방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방관은 진화작업에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행동을 회피하지 않는다. 경찰관은 피한이 총을 들고 인질극을 벌일 때 인질을 구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범인을 덮치는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아군에게 접근할 때에 동료를 살리려고 적군에게 대항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총알받이가 되는 행동을 망설이지 않는다. 희생적 행동들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 희생적 이타주의는 영웅심(heroism)과 연관된다. 영웅심은 자기 생명에 대한 위협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는 모험정신이다(London, 1970). 다른 한편으로 희생적 이타주의는 타자성(otherness)에 기초를 두는 이타주의이다(Levinas, 1986; Derrida, 1990). 타자성에 의하면 타인(other)은 자기(self)를 구성하는 존재로서 타인이 없으면 자기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자기의 존재가치인 타인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를 희생하여 돕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이다. 희생정신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타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숭고하고 순결한 동기요인이다(Simmons et al., 1977; Staub, 1978; Piliavin et al., 1981; Aronoff & Wilson, 1984; Hill, 1984).

부분집합에 속하지 않는 시혜적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협력적 이타주의는 이타주의를 표방하지만 행위자인 자기의 불순한 사리사욕(impure selfishness)이 기저에 깔려있다. 이에 비해서 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는 행위자인 자기의 순수한 무사무욕(pure selflessness)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이타주의 유형이다.

순수한 무사무욕은 이타주의에 대한 동기적 접근법의 핵심인 행위자의 동기적 순수성의 구성 요소들인 의도성, 자율성, 목적성, 무보상성(Bar-Tai, 1985)을 논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뒷받침될 수가 있다. 행위자인 자기는 타인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주어야겠다는 명백한 의도(intention)를 갖고 이타적 행동을 한다. 아무런 의식적인 의도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발적으로 이익이 주어지는 행위는 의도가 불명확하므로 배제된다. 행위자인 자기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타율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voluntarily) 이타적 행동을 한다.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주위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타인이나 제삼자의 강요 또는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행위는 배격된다. 행위자인 자기는 오로지 타인에게만 이익을 주겠다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자체(goal itself)만을 가지고 이타적 행동을 한다. 타인에게 주는 이익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숨겨진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수용되지 않는다. 행위자인 자기는 내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외재적 보상도 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무보상(non-reward)으로 이타적 행동을 한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명성이나 위신이나 행복감이나 우월감 등의 내재적 보상이나 이익에 대한 감사의 사례금이나 선물 등의 외재적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거부된다.

일반개인이 사적 자원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위를 하는 것과는 달리 동기적 순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의 보유자인 공직자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자원을 가지고 타인에 속하는 공중에게 공익의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적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중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자기 것을 손해를 보면서도 시혜적으로 베푸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마치 공적 자원을 자기의 사적 자원인 것처럼 사유화하여 공중에게 공공서비스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직자는 일반국민인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자기도 이익을 은밀히 도모하기 위한 숨겨진 위장적인 거래적인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공직동기의 동기적 순수성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의 특수한 이타주의 유형들은 이기적 요소가 배어있는 불순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이타주의라고 할 수가 있다. 순수한 이타주의는 행위자인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이기적인 요소가 원천적으로 완전 배제된 것이다(Lopreato, 1981). 그러므로 세 가지 특수한 이타주의 유형들은 공직동기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게 되어 부분집합에 속하게 된다.

이타주의의 유형들을 모두 포함하면 이타주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소들은 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 시혜적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협력적 이타주의로 총 6개가 된다. Rainey & Steinbauer(1999)의 동일집합 관점에서 보면 이타주의와 공직동기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총 6개의 구성원소들은 동시에 공직동기 집합의 구성원소들도 된다[이타주의 집합={시혜적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협력적 이타주의, 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 이타주의=공직동기].

이타주의 집합의 총 6개 구성원소들 중에서 공직동기의 집합에 속하는 구성원소들은 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로 총 3개이며 이타주의 집합의 구성원소들과 겹치는 구성원소들이다. Perry et al.(2010)의 부분집합 관점처럼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임이 구성원소들의 개수로 명확하게 파악된다. 총 6개의 구성원소들 중에서 부분집합의 구성원소들과 겹치지 않는 나머지 3개의 구성원소들인 시혜적 이타주의, 호혜적 이타주의, 협력적 이타주의는 이

타주의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뺀 차집합(여집합)의 구성원소들로서 공직동기와는 관계가 없는 구성원소이다(공직동기 집합={윤리적 이타주의, 공감적 이타주의, 희생적 이타주의}, 이타주의 \supset 공직동기).

V.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공직동기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들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측정척도를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등의 변수개념 차원이 아니라 동일집합과 부분집합 등의 집합개념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둘째 공직동기에 대한 접근법들 중에서 사회생물학자들이 견지하는 결과론적 접근법과 사회심리학자들이 취하는 동기론적 접근법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통상적인 이타주의 유형들을 압축하여 소수의 특화된 이타주의 유형들이 탐색되었다. 셋째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일부분임을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게(nebulously) 제시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이타주의 유형들을 집합의 구체적인 구성원소로 하여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임이 분석되었다. 넷째 동기적 순수성을 기준으로 공직동기와 관련이 없는 구성원소들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이기적 요소가 개입된 불순한 이타주의이고 공직동기와 관련이 있는 구성원소들은 동기가 순수하여 이기적 요소가 원천 배제된 순수한 이타주의로 규정되어 불순한 이타주의와 순수한 이타주의가 짝(pair)을 이루어 일반적 이타주의를 구성하였다.

Perry & Hondegham(2008)과 Perry et al.(2010)은 공직동기를 이타주의의 특수한 표현(specific expression) 또는 이타주의의 특수한 형태(particular form)로 보고 공직동기를 이타주의의 부분집합(subset)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타주의의 범주(boundary)는 공직동기의 범주보다 더 넓은 범주를 갖는다는 범주차원에서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Bozeman & Su(2015)는 이러한 추상성은 공직동기와 이타주의 관계의 모호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이타주의의 유형을 집합의 구성원소로 파악하고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추상적 모호성을 제거하고 구체적 명료성을 확보한 점은 공직동기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진일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Perry & Hondegham(2008)은 공직동기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상부 개념과 하부 개념으로 구성되는 수직적인 계층성(hierarchy)과 개념들이 서로에게 보충되는 수평적인 상보성(complementarity)을 제시하였다. 계층성에서 이타주의는 상부 개념이고 공직동기는 하부 개념이어서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하부이다. 이것은 이타주의가 우월한 개념이고 공직동기는 종속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일부분이라는 본 연구의 부분집합 개념은 계층성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상보성은 이타주의는 공직동기에 보충이 되고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에게 보충이 되는 보완적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공직동기에 속한 이타주의 유형들은 동기적 순수성의 측면에서 순수한 이타주의 유형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타주의에는 속하지만 공직동기에는 속하지 않는 이타주의 유형들은 동

기적 순수성의 측면에서 불순한 이타주의 유형이다. 순수성과 불순성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이타주의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상호보완적 구성(construct)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공직동기와 이타주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상보성의 관점과도 합치된다.

Perry & Hondegham(2008)은 범주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 이타주의, 공직동기 등 세 가지 개념들 중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범주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 이타주의는 중간 범주의 개념이고 공직동기는 가장 좁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사회의 규범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포괄한다. 즉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주의를 포괄하고 이타주의는 공직동기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타주의에 속하는 여섯 개의 이타주의 유형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서 공직동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공직동기에 속하는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서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친사회적 행동은 생물분류학에서 다루는 개념인 속(genus)에 해당되며 이타주의와 공직동기를 포괄하는 총칭개념(generic term)이 된다.

이타주의 유형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학문분야 별로 다르게 분류된다. 행동의 의도를 중시하는 사회심리학에서는 이타주의를 타인을 돕고자하는 의도적 성향으로 보고 이타주의 유형을 심리적 이타주의로 명명한다(Batson & Shaw, 1991).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행태과학에서는 이타주의를 행동의 의도보다는 행동의 결과의 측면에서 이타주의를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비용이 드는 행동으로 보고 이타주의 유형을 행태적 이타주의로 부른다(Fehr & Fischbacher, 2003). 또한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측면을 강조하는 진화생물학에서는 행위를 수행하는 생물의 적합성(fitness)을 줄이고 다른 생물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이타주의로 보고 이타주의 유형을 진화적 이타주의 또는 생물적 이타주의로 규정한다(Wilson, 1975; Dawkins, 1976). 본 연구에서 공직동기 부분집합에 속하는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행동의 동기적인 의도를 중시하므로 심리적 이타주의의 부류에 해당한다. 공직동기에 속하지 않으나 이타주의 집합에는 속하는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므로 행태적 이타주의의 부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은 동시에 행동의 결과를 중시하는 진화적 이타주의 또는 생물적 이타주의의 부류에 해당한다. 진화생물학에서의 이타주의는 동물들이 세대 간에 유전자의 진화적 전승을 통해서 종족보존의 성공을 달성하려는 이타주의를 인간에 적용하는 이타주의이다(Hamilton, 1964).

일반사회에서 통속적으로 이타주의라고 여겨져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는 유사개념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타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유사개념들로는 도움행동(helping behavior), 자선(charity), 자원봉사(volunteering), 나눔(sharing) 등이 있다. 도움행동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을 조력하는 일상적인 행동이고 자선은 주로 금전 또는 물건을 타인에게 기부하는 행동이고 자원봉사는 주로 시간을 내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행동이고 나눔은 단체의 회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집단적 단체행동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규범행동을 가장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개념들이 용어자체만 가지고는 자기의 이익이나 손해의 이해타산적인 셈법이 깔려져 있는 이기적 요소도 개

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유사개념들이 동기적 순수성의 요소들인 의도성, 자율성, 목적성, 무보상성 등의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주지 못한다. 이런 불명확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이타주의 유형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사개념들은 이타주의라고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타주의 집합이나 공직동기 집합에는 속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여섯 개의 이타주의 유형들 이외에 다른 유형들은 이타주의 집합 또는 공직동기 집합의 구성원소가 되지 못하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타주의에 관한 문헌들에서 학문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가 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가능한 한 가장 많은 타인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당위 하에서 주어진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비용-편익 분석적 개념이다(Singer, 2009; MacAskill, 2015). 효율적 이타주의는 이타주의를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집합 개념에서 구성요소가 되려면 구성요소들 간에 서로가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로서의 독립성을 가진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 이타주의는 본 연구에서의 여섯 개의 이타주의 유형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타주의의 효율적 집행 방법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하나의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의 여섯 개의 이타주의 유형들에는 들어 갈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 분석자체가 이해타산적인 셈법이므로 더욱이 공직동기와 관련된 세 개의 이타주의 유형들에는 포함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들이 제기될 수가 있다. 첫째는 동기적 순수성의 구성요소들 중 무보상성의 요소에서 물질적 외재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내재적 보상까지도 배제시킨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인간이 이타적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인간의 깊숙한 심리적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일깨워지는 잠재된 최소한의 즐거움이나 행복감까지도 순수하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같은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타적 행동을 통한 최소한의 인간적 심리적 보상은 허용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Comte, 1852; Smith, 1969; Batson & Coke, 1981). 둘째 동기적 순수성의 기준들에 근거하여 공직동기와 관련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을 자기의 이익과 연계된 이기적 요소를 완전 단절시켜 순수한 이타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의 보유자들인 공직자들은 누구나 순수한 이타주의를 가지고 이타주의자로서 당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순수성이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공직자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순수한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불순한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고 이기심을 발동하고자 시도한다면 공직동기와 관련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효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된다. 셋째 공직동기와 관련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이 순수한 이타주의라고 하는데 순수한 이타주의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순수한 이타주의를 신봉하는 순수한 이타주의자들은 타인을 돕는 이타주의 이외에는 자기에게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으므로 이타적 행동을 통해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타주의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성을 갖

는다. 이타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병리적 이타주의(Oakley et al., 2012)에 의하면 인간은 이타주의자로서 이타주의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이타주의자 자신에게는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병리 현상을 일으키고 타인에게도 좋은 이익보다는 나쁜 해를 입힌다. 우울증(depression), 탈진(burnout), 식욕부진(anorexia) 등의 병리현상은 이타주의자가 결국에는 이타주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한다.

이기주의 신봉론의 학자들은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타주의 신봉론의 학자들은 인간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윤리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타주의 신봉론의 관점에 서있다.

VI. 결론

공직동기에 관한 연구 패턴들 중에서 공직동기를 종속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매개변수 등으로 설정하는 변수개념 차원의 실증적 경험적 연구 패턴이 주류를 이루어 편향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신황용·이희선, 2012; 박창권, 2014; 김서용·김선희, 2014; 송성화, 2015; 강동철, 2016; 박순환·이병철, 2017; 김세화, 2018; 박정화·심동철, 2018; Crewson, 1997; Brewer & Selden, 1998; Perry et al., 2008; Quratulain & Khan, 2015; Perry, & Vandenaevle, 2015; Potipiroon & Ford, 2017). 반면에 공직동기는 이타적 동기라고 개념정의가 내려지고 이타적 동기가 공직을 수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도(Grand, 2003) 공직동기의 이타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다. 공직동기와 이타주의 관계를 집합개념 차원에서 공직동기는 이타주의의 부분집합이고 공직동기 집합의 구성원소인 이타주의 유형들을 세 가지로 특정한 것은 기존의 연구 편향성을 완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조직이나 지방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직자들은 공직동기의 보유자들이다. 공직자들은 이타적 동기인 공직동기와 관련된 순수한 이타주의의 순수한 이타주의자로서 일반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을 공익실현의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직자들은 윤리적 의무감에서 촉발되는 윤리적 이타주의를 실행해야 할 책무를 진다. 공직자들은 공감적 관심에서 촉발되는 공감적 이타주의를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진다. 공직자들은 헌신적 희생정신에서 촉발되는 희생적 이타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공직동기와 관련된 이타주의 유형들은 공직동기의 구성차원과 규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윤리적 의무감은 개인의 사욕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규범적 동기에서 나오는 공익몰입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공감적 관심은 곤경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정서적 동기에서 나오는 동정심(compassion)과 상관되는 개념이다. 희생정신은 역시 멸사봉공의 선공후사로 헌신하는 정서적 동기에서 나오는 희생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윤리적 의무감, 공

익몰입, 공감적 관심, 동정심, 희생정신은 공직동기가 추구하는 이타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개념들이다.

공직자들이 공직동기와 관련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보다 공직동기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을 따라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적 자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타적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해타산적인 이익도 도모하는 비윤리적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이타적 행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사적 이익을 꾀하는 비윤리적 행동은 공직자 윤리법과 윤리강령에서 규정하는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동기와 관련된 세 가지 이타주의 유형들은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른 부모 모델링을 통해서 성장과정에서 습득된다. 공공조직의 관리자들도 이러한 유형들을 가진 사람들을 공직임용 과정에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내재적 통제위치, 윤리의식 수준 등이 높은 사람이 이타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Staub, 1978; Piliavin et al., 1981; Aronof & Wilson, 1984). 그러므로 이타적 행동을 이끄는 이러한 개인적인 성격특성들을 심층면접의 항목으로 넣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공직동기가 이타주의와 관계도 있지만 친사회적 행동과도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동기와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점들을 다루지 않았다. 향후에는 공직동기, 이타주의, 친사회적 행동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공직동기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과제로 남는다.

순수한 이타주의가 인간 사회에서 최선의 선인가? 온건한 순수한 이타주의는 사회에 순도 높은 이타주의의 양(amount)을 증가시키는 최선의 선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느 집단만을 위한 극단적인 순수한 이타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즉 자기 집단 내에서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지만 다른 집단의 타인에게는 해를 끼칠 수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순수한 이타주의의 미명하에 나치당원들은 독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야 한다는 극단적 순수한 이타주의가 나치즘 같은 악몽의 전체주의가 되어 다른 민족과 국가에게 해를 끼친 역사적 사실에서 타당성을 갖는다(Rand, 1964; Kelly, 1998).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 극단적인 순수한 이타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성찰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도 존재한다.

인간의 어떠한 동기도 이기적 요소가 완전히 망각된 순수한 동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간의 특수한 동기인 이타적 동기는 이기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동기로 존재한다는 주장에 본 연구가 보탬이 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철. (2016). 지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PSM)가 인간관계를 통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부산광역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5(2): 381-418.
- 김서용·김선희. (2014). 공공조직에서 모호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호성의 유형별

- 효과와 공공봉사동기의 조절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1): 139-171.
- 김세화. (2018). 공공봉사동기가 내부고발의도, 조직몰입, 발언행동,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순환·이병철. (2017). 공공봉사동기의 영향요인과 효과에 관한 연구: 정부출연기관 조직구성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2): 181-207.
- 박정화·심동철. (2018). 윤리적 리더십이 공공조직 구성원의 업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절차적 공정성과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2): 59-90.
- 박창권. (2014). 직무특성이 공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조직문화, 통제위치 및 윤리풍토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송성화. (2015). 목표모호성과 조직행태-조직몰입, 직무만족, 공직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황용·이희선. (2012).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직동기, 신부 불안,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0(1): 1-35.
- 이승조·백혜림 (2011). 기아 돕기 캠페인에서 공감적 관심과 긍·부정 프레이밍이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56: 156-174.
- Aronoff, J. & Wilson, J.P. (1984). *Personality in the Social Process*. Hillsdale, NY: Erlbaum.
- Arrow, K.J. (1963).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New York: Wiley. Rev. Ed.
- Bar-Tai, D. (1985). Altruistic Motivation to Help: Definition, Utility and Operationalization. *Humboldt J. Soc. Relat.* 13: 3-14.
- Batson, C.D. (1987). Prosocial Motivation: Is It Ever Truly Altruistic? *Adv. Exp. Soc. Psychol.* 20: 65-122.
- Batson, C. D. (1997). Self-other Merging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Reply to Neuberg et al.(1997).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3): 517-522.
- Batson, C. D. (2009). These Things Called Empathy.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pp. 3-15). Cambridge, MA: MIT Press.
- Batson, C.D. & Coke, J.S. (1981). Empathy: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for Helping in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ed. J. P. Rushton. R. M. Sorrentino, pp. 169-88. Hillsdale, NJ: Erlbaum.
- Batson, C. D. & Shaw, L.L. (1991). Evidence for Altruism: Toward a Pluralism of Prosocial Motives. *Psychological Inquiry.* 2(2): 107-22.
- Bekkers, R. (2006). Traditional and Health-related Philanthropy: The Role of Resources and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4): 349-366.
- Bozeman, B., & Su, X. (2015). Public Service Motivation Concepts and Theory: A Critiqu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5): 700-710.
- Brewer, G.A., & Selden, S. C. (1998). Whistle Blowers in the Federal Civil Service: New Evidence of the Public Service Eth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8(3): 413-440.

- Briggs, N.C., Piliavin, J.A., Lorentzen, D., Becker, G.A. (1986). On Willingness to Be a Bone Marrow Donor. *Transfusion*. 26: 324-330.
- Buchanan, J.M (1954). Individual Choice in Voting and the Market. *J. Polit. Econ.* 62: 334-343.
- Comte, A. (1852) *Catechisme Positiviste*(Catechism of Positivism) trans. R. Congreve 1891 London: Routledge.
- Crewson, P.E. (1997). Public-Service Motivation: Building Empirical Evidence of Incidence and Effec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4): 499-518.
- Davis, M. H. (2005). Becoming (and Remaining) a Community Volunteer: Does Personality Matter?. In A. M. Omoto (Ed.), *Processes of Community Change and Social Action* (pp. 67-82).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awkins, Richard (1989). *The Selfish Gene*. Oxford Oxfordshire: Oxford University Press.
- Durkheim, E. (193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Macmillan.
- Fehr, E. & Fischbacher, U. (2003). The Nature of Human Altruism. *Nature*. 425(6960): 785-791.
- Fieser, J. (2010). *Ethical Theory: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adings*. N.Y.: Macgrows-Hill Inc.
- Hamilton, W. D. (1964).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ur. II. *J. Theoret. Biol.* 7: 17-52.
- Hill, J. (1984). Human Altruism and Sociocultural Fitness. *J. Soc. Biol. Struct.* 7: 17-35.
- Hoffman, M.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 Pers. Soc. Psychol.* 40: 121-137.
- Houston, D.J., & Cartwright, K.E. (2007). Spirituality and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1): 88-102.
- Kelly, D. (1998). Rand and Objectivity. *Reason Papers*. 23 (Fall 1998): 83-86.
- London, P. (1970). The Rescuers: Motivational hypotheses about Christians who Saved Jews. In *Altruism and Helping Behavior. Social Psychological Studies of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ed. J. Macaulay, L. Berkowitz, pp. 241-50. New York: Academic Press.
- Lopreato, J. (1981). Toward a Theory of Genuine Altruism in Homo Sapiens. *Ethol. Sociobiol.* 2: 113-126.
- MacAskill, W. (2017). Effective Altruism: Introduction. *Essays in Philosophy*. 18(1): 1-5.
- Margolis, H. (1982). *Selfishness, Altruism, and Ra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Oakley, B., Knafo, A., Madhavan, G., & Wilson, D.S.(2012). *Pathological Altruism* Oxford University Press.
- Oliner, S.P. & Oliner, P.M. (1988). *The Altruistic Personality: Rescuers of Jews in Nazi Europe*. New York: Free Press.
- Perry, J.L. (1996). Measuring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Assesmen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6(1): 5-22.
- Perry, J.L. (1997).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7(2): 181-197.
- Perry, J.L. (2000). Bringing Society In: Toward a Theory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Journal of*

-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471-488.
- Perry, J.L. (2014). The Motivational Basis of Public Service: Foundations for the Third Wave of Research. *Asian Pacific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36(1): 34-47.
- Perry, J.L., Brudney J.L., Coursey, D. & Littlepage, L. (2008). What Drives Morally Committed Citizens? A Study of the Anteceden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3): 445-458.
- Perry, J.L., & Hondeghem, A. (2008). Building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about Public Service Motivation. *International Public Management Journal*. 11(1): 3-12.
- Perry, J.L., Hondeghem, A. & Wise, L.R. (2010). Revisiting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Twenty Years of Research and an Agenda for the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5): 681-690.
- Perry, J.L., & Wise, L.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373.
- Perry, J.L. & Vandenevele, W. (2015). Public Service Motivation Research: Achievement, Challenge, and Future Direc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5): 692-699.
- Phelps, E.S. (1975). *Altruism, Morality, and Economic Theory*. New York: Sage.
- Piliavin, J.A. & Charng, H.W. (1990). Altruism: A Review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27-65.
- Piliavin, J.A., Dovidio, J.F., Gaertner, S.L. & Clark, R.D. (1981). *Emergency Interven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Piliavin, J.A. & Libby, D. (1986). Perceived Social Norms, Personal Norms, and Blood Donation: Aggregate and Individual Level Analyses. *Humboldt J. Soc. Relat.* 13: 159-194.
- Potipiroon, W., & Ford, M.T. (2017). Does Public Service Motivation Always Lead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s of Intrinsic Motivation and Ethical Leadership.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6(3): 211-238.
- Quratulain, S. & Khan, A.K. (2015). How does Employees' Public Service Motivation Get Affected? A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of the Effects of Person-job Fit and Work Pressure.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4(2): 266-289.
- Rand, A. (1961). *The Objectivist Ethics in Ayn Rand, The Virtue of Selfishness*. New York: Signet.
- Rainey, H. G. & P. Steinbauer. (1999). Gallopin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 1-32.
- Scheler, M. (1955) *Das Ressentimentim Aufbau der Moralen, Vom Umsturz der Werte, Gesammelte Werke 3*: 33-148.
- Schwartz, S.H. (1970). Elicitation of Moral Obligation and Self-sacrificing Behavior. An Experimental Study of Volunteering to Be a Bone Marrow Donor. *J. Pers. Soc. Psychol.* 37: 283-293.

- Schwartz, S.H & Howard, J. (1982). Helping and Cooperation: A Self-based Motivational Model In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Theories and Research, ed. V. J Derlega, J. Grzelak. pp 328-56 New York. Academic Press.
- Simmons, R.G., Klein, S.D. & Simmons, R.L. (1977). The Gift of Life: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Impact of Organ Transplantation. New York: Wiley.
- Singer, P. (2015). The Most Good You Can Do: How Effective Altruism Is Changing Ideas about Living Ethically. Castle Lectures in Ethics, Politics, and Economic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mith, A. (196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Indianapolis: Liberty Classics.
- Sober, E. (1988). What is Evolutionary Altruism? Can. J. Philos. 14: 75-99.
- Staats, E.B. (1988). Public Service and the Public Inter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 601-605.
- Staub, E. (1978). Positive Social Behavior and Morality,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 Trivers, R. L. (1971). The Evolution of Reciprocal Altruism. Q. Rev. Biol. 46: 35-37.
- Vandenaveele, W. (2007). Toward a Theory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Public management Review 9(4): 545-556.
- Wilson, E.O. (1975).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 Wilson, E.O. (1976). The War between the Words: Biological versus Social Evolution and some Related Issues: Section 2. Genetic Basis of Behavior—Especially of Altruism. Am. Psychol. 31: 370-371.
- Wise, L.R. (2004). Bureaucratic Posture on The Need for A Composite Theory of Bureaucratic Behavi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6): 669-680.
- Zuckerman, M., Siegelbaum, H. & Williams, R. (1977). Predicting Helping Behavior: Willingness an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J. Appl. Soc. Psychol. 7: 295-299.

이태우(李泰雨):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행정공무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조직관리, 인사행정, 재무행정, 도시행정, 윤리행정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공봉사동기의 소재에 관한 논쟁의 평가와 제안”(2020), “공공봉사동기(PSM)에 관한 매개역할과 조절역할에 관한 통합적 고찰”(2020) 등이 있다. 행정학개론,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조사방법론, 도시행정론, 지역개발론 등을 강의 중이며 신라대학교 베스트 티처상(2019)을 수상하였다.(twlee@silla.ac.kr)

Abstract

Relation of PSM and Altruism in Set Term

Lee, Tae-Woo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operates as the motivational force to induce the acts for the benefit of others except self. PSM has the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oriented altruism. The study of their relationship was performed based on altruistic types in the dimension of set theory.

The elements of altruism were almsgiving altruism, reciprocal altruism, cooperative altruism, ethical altruism, empathetic altruism, self-sacrificial altruism. The elements of PSM were ethical altruism, empathetic altruism, self-sacrificial altruism. So PSM was elicited as the subset of altruism. The altruistic types included in the set of PSM are the pure altruism aiming at the goal itself to benefit others without any rewards calculated in the motive. The altruistic types not included in the set of PSM are the impure altruism connected with the egoistic motive.

All of the public servants keeping PSM as altruistic motivation have the should-be responsibility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 without the pursuit of self-interest.

Key Words: PSM, altruism, subset, set element, altruistic type

